

기꺼이 라보신 삭도

2019년 12월의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을 앞둔 양덕온천 문화휴양지를 돌아보실 때였다.

이날 휴양지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스키장에 다시 가보자고 하시며 삭도가 있는 곳으로 향하시였다.

몇번 시운전이나 해본데 불과한 삭도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모실수 없다고 생각한 한 일군은 승용차를 타고 올라가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없다고, 동무들이 시운전을 열번 하였다고 하여도 자신께서 한번 타고 올라가는것만 못하다고, 인민들은 자신께서 삭도를 타고 올라갔다는것을 알게 되면 더 마음을 놓을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